

다국적 노조의 등장과 그 의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영·미

하세정 (영국 LSE 경제지리학 박사과정)

■ 머리말

다국적 기업이 출현하고 보편화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노사관계상의 파트너인 노동조합은 최근 까지 그 영향력이 국경을 넘는 사례가 좀처럼 드물었다. 발빠른 경영 전략으로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이나, 값싼 노동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이 급격히 사측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 특히, 값싼 노동력을 찾아 이동하는 다국적 기업에게는 국지적인 노동조합의 저항이 무의미하게 된 지 오래다. 불균형한 노사관계 속에서 쇠락해가던 노조들 역시 기업들의 전례를 따라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덩치를 키우고, 조직의 영향력을 세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기 시작했고, 여러 차례 세계적으로 연합된 노조를 출범시키기 위해 애써 왔다. 이러한 노력이 최초로 결실을 맺은 사례로서 최근 전격적으로 이뤄진 영국과 미국의 노조 간의 통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문에서는 통합 동기, 과정, 향후 활동 전망 등을 중심으로 세계 최초 글로벌 노조의 등장을 소개하기로 한다.

■ 최초의 다국적 노조

영국의 '유나이티(Unite)' 와 미국의 '연합철강노조(United Steel Workers)' 가 전격적인 합병함으로써 사상 최초로 진정한 의미의 국제노동조합이 탄생하게 됐다. 두 노조는 7월 2일 미국 라스

베가스에서 개최된 철강노조의 정기총회에서 조인식을 갖고 대륙간 노조 ‘워커스 유나이팅(Workers Uniting)’을 출범시켰으며, 300만 명이 넘는 노조원수를 자랑하게 됐다. 연합철강노조는 미국을 주축으로 캐나다와 캐리비안 지역까지 영향력을 과시하는 북미 최대의 민간 부문 노조로서 광업, 석유, 제지, 보건·안전 산업분야의 종사자 120만 명을 노조원을 거느리고 있다. 유나이팅(Unite)은 제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아미쿠스(Amicus)’와 ‘운송일반노조(Transport and General Workers Union)’의 합병으로 2007년 5월에 탄생했으며, 영국 전 노조가입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의 회원수를 자랑하는 영국 최대의 노조이다.

약 2년간의 물밑 교섭을 통해 준비했던 합병은 2007년 4월 18일 양해각서 교환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각서에서 합병에 대한 동의를 밝힌 노조들은 세부적인 합병 준비 절차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영·미측의 각 조합에서 합병을 진행할 5명씩 대표위원을 선출하고, 이들을 보좌할 실무진 구성해, 통합을 진행할 법적인 틀과 정관, 규정과 규칙 등을 마련하고, 조직의 구성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분기마다 고위 관계자 회담을 통해 공동 노력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내고, 통합의 큰 그림을 감독하게 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노조 활동 프로그램을 단일화할 방안을 찾고, 중장기적으로 노조 상호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려 노력해 왔다.

■ 통합 동기

지리적·제도적·법률적인 면 등에서 통합이 쉽지 않았을 두 거대 노조의 통합을 이끈 가장 큰 원인은 노조들이 상대해야 할 기업과 자본의 세계화였다. 기업들이 발빠른 다국적화·세계화를 통해 다양한 경영 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노조들은 여러가지 제한으로 인해 국경을 넘기 힘들어 주로 상대해야 했던 다국적 기업의 힘을 넘어서기 어렵었던 점이 세계적인 노조 쇠락의 한 이유로 꼽혀 왔다. 영미 간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노조들 간의 연대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다. 완전 통합의 사례가 나오기 전에도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와 상호 지원을 해온 예는 여러번 있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계약직이나 임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추세에다 연금 제도의 축소나 폐지, 물가보다 낮은 임금인상률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노조도 다국적화된 기업 앞에서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거대 다국적 기업들에 맞서기 위해 노조 간에 힘을 결집시킬 필요를 느끼게 됐고, 전략적 동맹 이상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점차 뜻이 모으게 됐다. 즉, 세계화된 거대 기업들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노조들 역시 인적·재정적인 힘을 축적하고, 세계적으로 통일된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를 인식한 노조가 우선 자국 내에서의 몸집 불리기를 통해 인적자원과 자금을 확보한 후 이를 발판삼아 세계화를 추진하게 됐다. 유나이트의 경우 아미쿠스와 일반운송노조의 자국 내 합병을 진행하면서 북미의 철강노조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다.

아미쿠스 출신의 유나이트 공동 의장인 데렉 심슨은 인터뷰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한 나라의 근로자들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근로자들을 우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과도한 힘을 통제하고, 그것에서 비롯되는 횡포와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국가의 권위까지도 넘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유한 계층과 나머지 계층 간의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철강 노조의 리오 W. 제라드 위원장도 글로벌노조의 탄생은 날로 그 힘이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세계화는 자본가들로 하여금 선진국 근로자들의 실업이라는 대가로 개발도상국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게 해줬다고 주장했다. 오직 노동자의 전 세계적인 강한 유대만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노동력 착취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운영 방안

새로운 통합 노조는 영국, 미국, 아일랜드, 캐나다에서 등록되어있고, 설립에 참여한 노조들의 모든 조합원을 온전히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공동의장에는 철강노조의 제라드 의장과 유나이트의 데렉 심슨 의장이 맡기로 했다. 새 노조의 조직은 창립 참여 노조들로부터 일정 인력을 지원받아 구성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 의해 운영된다. 운영위원회는 학술연구, 국제문제, 의사교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초기 예산 집행권을 가진 운영위원장 1인에 의해 지휘될 예정이다.

두 노조는 소속 국가 내에서는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협상력을 보장받는 등 전반적으로 개

별적인 존재로 남을 예정이지만,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초국가적인 연합이 필요할 경우 공동지도부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보조를 취할 예정이다. 제라드 의장은 공동의 리더십이 필요한 공통의제가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 철강, 제지, 석유 산업 등에서 두 노조가 공통으로 상대해야 할 기업들이 적잖이 있으며, 이 기업들과의 협상에서 양국간의 공동보조를 맞춰야 할 사안이 많다고 밝혔다. 예를 들자면 한 나라에서 확정급여형 연금 지급에 대한 노사간 동의가 이뤄졌을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합의가 나올 수 있도록 양쪽에서 압박을 가하는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활동 전망

가입 노조원들의 권익 보호라는 핵심적인 활동 외에 글로벌 노조로서 성장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노조활동을 홍보하고, 자립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노조활동을 지원한다는 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노조 운동 확산을 위해 두 노조가 합병 과정 중 콜롬비아와 멕시코 노조활동 지원 등을 포함하는 국제연대(solidarity) 프로젝트에 함께 투자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거대화 된 글로벌노조의 1차적인 상대는 물론 다국적 기업이지만, 한껏 커진 규모를 이용해 정치권에 대한 로비활동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노조는 상호간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 상승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대방 국가의 정치 행사에 상호 교차 참석할 계획이다. 유나이트는 현재 영국 노동당에 상당한 액수의 당비 납부를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철강노조 역시 미국 민주당의 가장 영향력 있는 조력자 중 하나이다. 두 노조는 앞으로 노동당 전당대회나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참석하여 파트너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줄 전망이다.

이외에도 노조측은 국제통상, 개도국 근로자 권익, 국가간 노동력 이동 등에 대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규모의 노조의 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비력과 발언권 역시 급격히 신장할 것으로 기대돼 WTO, 유럽연합 위원회 등과 같은 초국가적 기관 등과도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있고, 기후 변화와 같은 세계적 이슈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확장 전망

초국가적 거대 노조가 최초로 등장하기는 했으나, 이는 노조의 세계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유나이티드를 구성하는 다른 한 축인 운송일반노조 출신의 토니 우들리 유나이티드 공동의장은 새로운 노조의 출범은 앞으로 더 크고 강력한 국제노동조합을 위한 초석일 뿐이라고 밝히, 초국가간의 노조 합병이 앞으로도 더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짐작케 했다. 데렉 심슨 의장도 이번 통합을 정확히 합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하면서, 실제로 전 세계적인 노조 설립을 위해 틀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설명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합병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심슨 의장은 이번 합병을 이렇게 준비된 틀에 먼저 서서히 두 참여 노조를 이주시켜간다는 방식을 제시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워커스 유나이티팅이 기존의 노조들을 추가적으로 합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만들어졌음을 시사했다.

좀 더 구체적인 확장 움직임도 포착된다. 2007년 유나이티드로의 통합을 준비하면서 아미쿠스는 독일의 금속노조인 'IG Metall', 미국의 '국제정비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 또 이미 합병을 마친 '연합철강노조(USW)'와 10년 뒤의 연방제 형태의 단일 노조 출범을 목표로 연대 협약을 맺었다. 현재 아미쿠스가 유나이티드로 합병됐기 때문에 새로운 통합사업은 영국에서는 유나이티드가 주축이 되어 진척될 가능성이 크다. 이 노조가 출범할 경우 760만 명의 노조원을 거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워커스 유나이티팅은 이미 '오스트레일리아 노동자 연합(Australian Workers' Union(AWU))'나 유럽의 노동조합들과도 연대를 위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와 유럽의 일부 선진국 중심의 노조들에 집중된 멤버십을 탈피하여 활동 영역을 전 세계로 옮겨가려는 의중은 다른 지역의 노조들과도 연대를 이룰려는 계획에서 비춰진다. 두 노조는 '워커스 유나이티팅'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노동력 착취에 대응하고, 노조운동 확산에 힘을 보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Committee)와 함께 중앙아메리카, 중동,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지의 노조와 동맹관계를 맺는 노동 권리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

다국적 노조의 출현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영국노동총연맹(TUC)의 오웬 튜더 국제관계 담당관은 자본주의가 세계화되는 시대에 이번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찾기 힘들다고 평했다. 한편으로는 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서도 과정상의 어려움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유나이트의 경우 영국 내에서도 여러개의 노동조합이 모여서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가지로 더욱 이질적일 수도 있는 외국 노조와 급하게 통합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또한, 유나이트의 산업별 구성에 대한 염려도 제기됐다. 런던 정경대의 리차드 하이만 노사관계학 교수는 유나이트를 다 가진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도 가지지 않았다고 평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노조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한 분야에서 독점적인 협상력을 가질 만큼 노조원을 확보한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다국적 노조로 발돋움했을지는 몰라도 협상력과 같은 내실은 여전히 부족한 유나이트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런 한계때문에 글로벌 노조라는 위명에 걸맞지 않게, 여전히 다른 노조들과 공동 대응 정책 등을 논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또한, 초국가적 통합의 효과를 통해 노조의 부흥을 꿈꾸는 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시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영국의 경우, 25년 전에 비해 노조 가입자 수가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고, 여러 차례 나타난 국내 통합은 노조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조정 과정이었다기보다는 노조의 쇠락을 제한적으로 막는 임시방편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즉 같은 논리로 노조 활동을 세계적으로 퍼뜨리기 위해 몸집을 불린 이번 통합의 목적도 과거의 사례를 보아 이루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셈이다. 앞으로의 확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다. 영국 리즈대학의 이안 그리어 연구원은 유럽의 노조의 경우 노조원 손실이 많지 않고, 그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통합에 응할 인센티브가 많지 않다고 평가했다. **KLI**

참고문헌

- BBC, 2008년 7월 2일, 'Merger forms transatlantic union'
<http://news.bbc.co.uk/2/hi/business/7484639.stm>

- Eiro, 2008년 8월 8일, 'Transatlantic agreement creates first 'global union'
<http://www.eurofound.europa.eu/eiro/2008/07/articles/uk0807049i.htm>
- Newstatesman, 2008년 7월 2일, 'Workers of the world unite'
<http://www.newstatesman.com/international-politics/2008/07/global-union-unite-european>
- Time, 2008년 7월 1일, 'Big Labor Goes Global'
<http://www.time.com/time/business/article/0,8599,1819380,00.html>
- Workers Uniting 웹사이트
<http://www.workersuniting.org/default.aspx?page=281>